

부활 제 3주일

기도서 284면 (A해)

제1독서: 사 도 2, 14. 22-28

제2독서: I 베드 1, 17-21

복 음: 루 가 24, 13-35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 보았다”
(루가 24, 30-31).

강론



「신앙의 눈」

김 정 원 신부

루가복음 24장 13~27절의 내용은 「엘마오 예수 부활 기사(記事)」의 제1부인데, 이것은 예수의 정체(正體)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28~35절의 내용은 「엘마오 예수 부활기사(記事)」의 제2부인데, 이것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내지는 장면이다.

두 사람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빵을 나누게 되었다. 「예수가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30절). 물론 이것은 「성찬식」이 아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행 2: 42, 46). 그러나 그것은 무리(無理)인 것이다. 이때 갑자기 두 사람은 이 자(者)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때까지 눈이 가리워졌던 것이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24: 16). 그러나 그들은 이제 「눈이 열려」(24: 31) 예수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두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예수는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자(者)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수의 현현(顯現)은 일순간이었지만. 그 인상(印象)은 그들에게 없어지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 인상(印象)이 점점 강해졌던 것이다. 「보이지 않았다」의 원어(原語)인 「아판토스」는 초자연(超自然)적인 것이 모습을 감추는 것에 사용된다(왕하 6: 16~17). 이것은 부활체(復活體)의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모습도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유령(幽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분명 반(半)물질적, 반(半)영적이라 할 수 있는 현실(現實)적인 존재(存在)였지 결코 환상(幻像)은 아니었다. 예수의 모습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 그것은 예수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발현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이 예수의 부활모습을 본 이상, 그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한편 천(天)적인 존재는 더러운 이 세상에 영구히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의 눈은 감히 천상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러운 마음과 눈을 가진 우리는 그것이 깨끗해져서,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에만,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부활은 신앙적인 사실이지, 인간의 오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역사(歷史)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진다(행 10: 41, 요한 14: 21).



지가 언젠가는 오겠지!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섰노라니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건네신다. —“OO가는 버스, 여기서 타는가?”/“예.”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으니 혼잣말을 하신다. “지가 언젠가는 오겠지.” —문득 치명자산에서의 새벽이 생각난다. 어둡어둡해서 시작된 사순절 9일기도 미사가 강론시간쯤이면 밝아오기 시작한다.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둡더라도 새벽이 오기는 오는 거다.

이른바 「4·13 중대결단」이라는 것이 발표되고나자 사람들의 심기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용기가 없어서 큰 소리는 못치지만, 병어리도 날짜가는 속은 안다는데, 어찌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안나겠는가? 드디어 변호사, 종교인, 재야단체, 대학교수들이 양심의 소신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사제들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 전주와 서울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광주신학교에서는 부제들 전원이 단식에 동참하고, 교수 신부들은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광주 가톨릭대학 교수신부들은 “거짓과 기반을 일삼아 온 당국의 태도는 이른바 ‘고뇌에 찬’ 「4·13 중대결단」에서 다시 한번 그 실상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말았다”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과 자유마저 빼앗겨 버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

우리 교구의 젊은 사제들은 “반드시 해야 할 말과 행위마저 빼앗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불씨가 되고, 이 시대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작은 희생을 봉헌하며, 단식기도에 임합니다”고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동참하는 사제들의 숫자가 불어 22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사제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도 중요하다. 평신도여, 기도로 동참하자.

숨 정 이 산책



동참하는 뜻으로 날마다 주모경 1번씩 바칩시다

— 성 명 서 —

—〈4·13 중대결단〉을 적극 반대하는 단식기도를 드리며—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 민주화에 목말라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카오스」였던 「4·19의거」는 「5·16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피지 못한 자유의 꽃잎으로 무참히 떨어져 갔습니다. 그후 유신체제는 수없는 인권유린의 억압으로 장기집권의 슬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80년 자유의 하늘」은 「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학살」로 말미암아 또다시 군부독재의 아성에 물들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일 년간 우리 국민 모두는 힘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한 현 정권이 지난날의 과오를 (12·12 쿠데타, 5·18 민주학살) 결렬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마음을 비운 명예로운 퇴진을 소망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같은 염원과 기원은 아랑곳없이 친인공로할 성고문 사건, 전대학생 시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민주화를 갈망하고 목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탄압고문, 용공좌경조작, 적법한 시위에 대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위 원천봉쇄……. 이러한 시대적 어둠과 아픔 속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4·13 중대결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통치권자의 마음을 비운 결단을 기대했지만, 막상 내려진 이른바 「고녀에 찬 결단」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주었고……」 김수환 추기경의 「87 부활메시지에서 천명된 것처럼 실로 이 땅의 모두를 슬픔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고대 교수 30명의 「견해」에서 표현된 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친부적 기본 인권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도 지체될 수 없는 것이며, 소위 〈4·13 중대결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독재정권의 연장이기에 이를 반대하며, 그동안의 그칠줄 모르고 갈구해 온 모든 민주화 노력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들의 슬픔을 안고는 「올림픽대사」를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기쁨을 안고서 그 축제를 지내게 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칭 「단입」이나 「올림픽」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그것들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정치가 아무리 허망하고 사회의 모든

현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진리와 사랑의 불을 지피며 살면 주님은 억압된 민중의 깃발인 인간성을 반드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김수환 추기경, '87 부활메시지)의 믿음을 함께 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섬기라고 파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따라 민주화를 위한 십자가를 지며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간, 광주교구 사제들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하느님께 우리의 단식과 기도를 바칩니다.

1. 이 나라 이 땅에서 인권유린의 추방을 위해
1. 「4·13 중대결단」을 적극 반대하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의 실현을 위해 (등장에서 대통령까지 우리의 손으로!)
1. 양심수와 정치범들의 석방과 민주인사의 사면 복권을 위해
1. 군부독재의 자발적인 퇴진을 위해

천주강생 일천 구백 팔십 칠년 사월 이십 사일
 천주교 전주교구 단식 사제 일동

민주개혁을 위한 대 기도회

장 소 : 중 앙 성 당

일 시 : 5월 4일 오후 8시

주 최 : 전주교구 사제단

하 몬 드

짜즈 피아노 > 교습
 전자울켄 > 교습
 ☎ 3-0615-82-4792
 전주시 서노송동 568-54
 위치 : 시청 200m → 노송
 동 전복은행 앞 2층
 정 그레고리오



주 부 사 원 모 집

“확실한 수입, 적은 시간으로 최대의 보수, 남자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약속받는 전통의 응진 주부사원-의욕있는 주부님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자격제한 없이 수시 모집합니다.

연락처 : 전주 응진아이큐(소서빌딩 401호)
 전화 83-6914-6339
 제 1본부장 송 절 자(루시아)

케주얼 슈즈 뱅가드 슈 발 구 두 정 주 대 리 점

대표 방극섭(요한)
 정주시 대성쇼펍 옆
 전화 2-4638

교 구 소 식

- ☆ 성모 성녀 선포 장엄미사 및 아버지 효도 기념행사 : 25일, 오전 10시30분—성녀 선포 및 장엄미사
오후 1시30분—아버지 효도행사 및 교구장 회갑 축하식,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 1. 어린이양 기차단 행사 : 3일(오늘) 오전 10시 집합(가톨릭센터)
광주 가톨릭신학교 방문 ※ 기자증 배부
- 2.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사랑의 다리” : 4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11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 4. 신앙쇄신 대피정 : 5일 오전 9시40분~오후 9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가비—1천원, 대상—모든 교우들
-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7일(목), 장소—덕진천주교회
- 6. 소년 꾸리아 이리·전주지구 합동 성지순례 : 10일 1시30분 출발(전동성당에서)
준비물—목주·미사포·도시락(전주지구 꾸리아 12시에)
- 7. 제4기 심성개발 :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존엄성을 공감하고 성취동기와 자기신뢰감을 증진시키며, 정서순화 및 원만한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23일 오후 3시~24일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13,000원(교재 포함), 지도—신옥희 선생님, 접수—19일까지 교육국으로(접수순 25명)
- 8. 성소모임 안내 : 마리아 봉사수녀회—10일 오후 2시~6시, 장소—청주 수녀원(0431) 61-8591, 예수고난회—9일~10일, 장소—서울 우이동 명상의집(02)993-0232, 피정비—1천원, 대상—고졸 이상(영세한지 3년이상)
- 9. 전북지구 젊은이의 모임(형제회) : 3일 오후 5시, 장소—전동성당 사제관 2층
- 10. 전국 울뜨레아(5월 5일) : 꾸리실리스타는 대구에서 만납니다. 각 본당 회장은 참가비를 당일 사무국 총무에게 납부바람, 분배해 드린 명찰 기입하여 당일 패용바람
- 11. 오늘은 정의평화를 위한 미사, 특별 2차연금 있습니다

□ 10만인 성지순례 5월 1일부터 여산→천호코스 폐지합니다

10만인 성지순례 <순정이→치명자산(오후2시)>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일	담당 신부
3(일)	현유복 신부	9(토)	이종원 신부	10(일)	윤양호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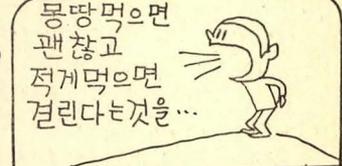
✿ 잠 간 !

☆ 「빛따라」에 부치는 글

맑은 봄날, 부활절을 기해 청소년들을 위한 주보 「빛따라」가 창간되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오늘날의 여건 속에서 교회 안의 청소년들을 위해 정성을 쏟아 조출한 주보를 내기까지엔 많은 망설임과 고충도 없지 않았다. 진작부터 풀었어야 할 숙제를 끝낸 것같은 홀가분한 느낌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각 본당의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으며 「빛따라」가 성장해갈지는 교구의 모든 신자들의 관심과 열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부모들은 얼마나 큰 관심과 염려를 느끼고 있는가? 학교 교육에 밀려나버린 신앙교육이 실상 인간 바탕을 다져주는 밑거름임을 모르는 바도 아닐텐데…….

「빛따라」는 제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녕 빛을 향해 쉼없이 걸어갈 수 있는 어른들의 내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조언과 유효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격려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사도직을 수행케 해야 할 것이다”(영신도 사도직 교령 12)라는 문헌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요심이 (717) 김병오



□ 1분 명상

“죽으면 우리는 다 사랑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성 요한

명동피부과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오그라든 손의 치유

—宗教家 常識과 人間常識—

(마르12:9-14, 3:1-6)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센타 3층

강사: 김정원 신부

회비: 매주 1,500원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황 수 경
(크리스티나)

이 승 렬 (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타운행진너변 골목

신앙쇄신 대 피정

1. 일시 : 1987. 5. 5. 오전 9시40분~오후 9시
 2. 장소 : 전 동 성 당
 3. 참석대상 : 모든 교우(예비교우 환영)
 4. 초청강사 : 김진소 신부님, 이정환 신부님, 최익철 신부님, 박시문 회장님, 김발다살 회장님
 5. 참가비 : 10,000원(점심 자자 준비)
 6. 주 관 :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 ※ 오후 7시30분부터 「가라반달의 성모님」 영화상영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임의도

- ☆ 축! 본당신부님 영명(야고버)축일: 오늘
축하식-공식미사 후
신부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 반미사 안내: 6일 오후 8시, 1반
1. 5월은 성모의 성월입니다
2. 성소주일: 다음주일
성소를 위한 기도와 관심바랍니다
3.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 오늘 오후 3시
피미씨음-다음주일(10일) 오후 2시
4. 성체회: 성체조배에 빠지지 맙시다
5. 신학생 후원회: 1주과-매월 1천원(사무실 접수)
6.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신입하지 않은 세대는 바로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하신 분들은 헌금납부에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23,700원 교무금: 679,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2 사목회장 소안영
수녀원 76-0961

-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2. 차주는 친교주간: 반장님 모임-차주 공식미사 후
3. 공동체 목상회(M.B.W) 기초코스교육
일시: (11일~16일), 장소: 본당, 참가비: 1천원
시간: 월~금 7시30분~10시, 토-6시~10시,
전신자는 꼭 참석하세요, 미리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전신자 성지순례: 6월 14일, 배론성지,
참가비-5천원
5. 미사시간 안내
월요일: 새벽 6시, 화요일: 오전 10시~L·M미사,
수요일: 오전 10시-어머니미사, 목요일-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주
일학교미사, 오후 5시-중·고생미사, 일요일: 새벽
-6시, 공식-10시, 저녁-7시30분
6. 감사: 신축헌금 최기선-1만원
7. 금주복사: 윤기환-최장수 차주: 이대용·장유진
8. 금주봉헌: 김주철 부부 차주: 김금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50,860원 교무금: 541,000원
신축헌금: 1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룡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평하현

- ※ 5월은 성모성월, 가정의달: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
해 성모의 도우심을 빕시다
1. 오늘의 모임-행사: 요세회-진복회-공식미사 후
유아세례-아동미사 후(4시)
2. 금주 모임-행사: 안나회-6일 오전 11시
성심부녀회-6일 오전 10시
까리따스회-12일 오후 2시
신자 1일피정(푸른군대 주관)-7일 오전 10시
3. 예비자교리반 개강식: 7일 저녁 8시(2층 교리실)
4. 다음주일 모임 예고
베드로·바울로회(30~40대 성인)-공식미사 후
성화회(40~50대 성인)-공식미사 후
사도의 모후pr 옥의행사(부부모임)-10일 9시 출발
5. 송천성전 신축헌금 납부에 최선의 정성을 빕니다
현재 신일총액-181,780,000원
(L·M 7개 pr-4,654,000원)
6. 금주 본당청소: 결백하신 어머니pr-9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854,251원 교무금: 673,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본당의 날: 24일(23일은 전야제 겸 성모의밤)
본당설립 3주년을 맞아 정성껏 준비합니다
1.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과 본당 수녀원 건립에 적
극 참여합니다: 각 단체장과 구역장에게 신입하세요
현재 신입액-760,000원

- 2. 미사시간 변경: 9월 30일까지. 모든 저녁미사 및 저
녁행사(구역모임, 예비자교리 등)를 8시에 시작합
니다
3. 예비자교리: 목요일 오후 8시(성인)
중·고생-토요일 오후 6시
4. 생활교리: 일요일 공식미사 후(수녀님 지도)
예비자는 의무적, 관심있으신 분은 참여바람
5. 본당청소: 금주-매피의 모후, 차주-증거자의 모후
6. 수녀님 가정방문: 금주-평화의 모후
차주-매피의 모후
7. 금주 구역미사·모임: 화-금요일 오후 8시
5일: 미사-동원, 모임-광1구, 6일: 나눔잔치-동6
구, 8일: 미사-동2구, 모임-성덕
8. 모임안내: 애령회-오늘 공식미사 후
동명회-차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11일 오후 8시(성당)
9. 금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김준권 ②문정순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신영우 ②김경숙
□ 지난주 봉헌금: 273,770원(내동 20,010원)
나눔의날 헌금: 34,7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1. 성체와 교회의 해를 맞아 개인 및 단체별로 소성당
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합시다
(시간: 오전 10시~오후 9시)
2. 5월 한달동안 예비자 모집하여 6월부터 교리반 시작
합니다: 사무실에 신청, 목요일 저녁 교리있을 예정
3. 푸른숲·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전국 울뜨레아(대구): 5일
5. 구역모임: 6·7·8일(술머리 참조)
6. 초등부 고백성사: 9일 오후 5시
7. 공사관계 안내: ①미사장소가 협소하니 신주머니 필
히 지참 ②주일학교 첫영성체 가솔로 미룹니다
8. 중·고학년 담당교사 임명
중1-이경자 선생님, 중2-손미경 선생님, 중3-김
영복 선생님, 고1-곽정완·조혜경 선생님, 고2-홍
성조 선생님
9. 미사안내: 바나의 별
10. 금주 본당청소: 화-평화의 모후, 토-애덕의 모후
11.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강원모·박봉자
봉헌기도-이철수·문봉래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경주·김숙현
봉헌기도-이철수·김시자
□ 지난주 봉헌금: 505,220원 교무금: 629,2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범문
수녀원 75-6389

- 1. 5월은 성모성월
2. 유아세례: 3일 저녁 6시30분 접수
3. 5일(어린이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4. 8일(어버이날): 부모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5. 일상기도문: 구입하여 기도하세요
6. 은인 구할: 제의를 봉헌해 주실 은인을 찾습니다
7. 판공성사 누락자: 미사전·후에 보세요
8. 봉헌바람: 성전건축을 위한 성미와 토끼저금등
9. 알려주세요: 주소·전화번호 변경되신 분과 교적없이
이사로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10. 미사 봉헌합시다: 먼저가신 선영을 생각하고 위령마
사와 가정 생미사를 봉헌합시다
11. 차주전례
5월 10일: 해설-진길자, 독서-①한갑용 ②홍경희
봉헌-최윤선 부부, 안내-함권술·이진호
5월 17일: 해설-이순영, 독서-①강신근 ②이복희
봉헌-김중표 부부, 안내-채수원·이완
□ 지난주 봉헌금: 431,450원